

콘텐츠 수준높이기와 독립채산제, 쌍방향 실험정신의 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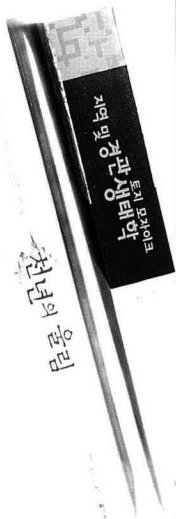
왼쪽부터 백인욱 계장, 주혁상씨, 최관 출판부장, 이찬석 팀장, 김소영 디자이너.

우리나라 대학의 70여 곳은 출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연간 5종 이상의 책을 출간하는 출판부는 40군데,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다. 그렇지만 학술도서를 중심으로 출간하는 대학출판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운영상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닌 것이야 뻔한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성균관대학교출판부는 학교 당국이 스스로 나서 실험적인 제도를 도입, 운영을 시도했다.

대학 법인이면서도 유일하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1975년에 설립했는데 1999년에 학교 당국에서 새로운 구조변화를 시도했죠. 임대료와 전기료 등만 제외하고 출판부 내부에서 모두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출판팀에서 편집업무를 담당하는 백인욱 계장은 여섯 명의 식구가 출판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출판부에서는 최관 출판부장(경영학부 교수)을 중심으로 편집 담당 3명, 디자이너 1명, 팀장 1명이 알차게 실무를 이끌어가고 있다. 출판부 직원들은 학교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운영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를 소품종 소생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연간 20종의 책을 출간하는데 이들 책이 1,000부 가량 팔리면 이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는 셈이다. “일반 소규모 출판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1999년부터 학교측에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다가 시작한 시스템이죠. 현재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중인데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동안 성균관대학교출판부에서 출간한 책들은 대학 이름으로 퍼낸 만큼 학술도서가 많았다. 학교 자체가 동양철학을 주요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고 교풍 역시 동양과 관련되어 있으니 이와 관련된 교수진의 저서와 수상도서 등을 꾸준히 출간해 온 것이다. 그 중에서 《mam의 지배-사회적 가치분배의 철학》(김비환 지음)과 ‘문화와 풍경’ 시리즈, 이기동 교수가 역해한 ‘동양고전 시



리즈' 등은 출판부에 꾸준한 효자 노릇을 해온 책이기도 하다.

“사실 일반 책들은 2쇄, 3쇄 넘어가면 스테디셀러라고 하는데 우리는 연간 1,000부만 넘어가도 효자 노릇을 하는 스테디셀러가 됩니다. 최근에도 다양한 시리즈 도서를 충실하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편집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일반대중들의 호기심을 끌면서도 학술성이 담긴 책을 출간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한다. 모든 책에는 저자와 독자가 함께 존재하므로 독자가 읽

고 공감하며 무언가를 재생산할 수 있는 도서를 꺼내지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출판기능을 한다는 체면치레용 책이 많은 편이었는데 수준을 잃

지 않으면서 독자층 축적도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달 출간의뢰 원고는 약 3건. 출판부는 너무 대중적인 도서는 거부한다. 최관 교수는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지만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말한다. 대학출판부는 그 나름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본교

교수 저작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다소 상업성이 떨어지더라도 일반 출판사에서 출간을 외면당한 우수 도서들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그런 이유에서다. 30평 남짓한 출판부

공간. 이 공간 외에 성균관대학교만의 특화된 공간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재고도서를 처리하는 서고다.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지 않아 공간 활용을 넓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다 땅값이 비싼 명륜동에 서고를 마련한 것도 특별하다. 그리고 600주년

기념관 건물의 공연장 주변에 ‘책 읽는 마을’ 게시판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출판부가 낸 책 정보를 제공하는 점도 성균관대학교출판부만의 특성화 노력이다.

“대학출판부는 시류에 영합하지 않죠. 저는 출판일을 한 지 11년이 되었고, 2년 전에 성

균관대학교출판부에 왔는데 너무 일반적으로 시장성을 두는 도서보다 학생들에게 혹은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도서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학출판부, 언론사 출판부가 발전하면 우리나라 출판부는 모두 다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책과 가까워야 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이 책과 먼 거리에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는 백인욱 계장은 여전히 책에 무심한 독자들의 태도에 불만이 많다.

“저희는 양서를 출간하면서도 디자인 등 책의 외형이 일반 출판사에 뒤떨어진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음지에서 양서를 발굴하는 작업과 같다. 이 때문에 출판

시장에 갖는 바람도 크다. 편집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찬석 팀장은 대학출판부 도서는 많이 팔려봐야 300권이라며 대학출판부 역시 자생력을 갖기 위해 주변의 많은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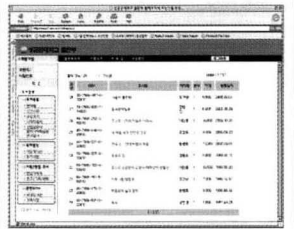
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문화사업으로 인정하고 측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사회적 여건이 중요하죠. 내고 싶어도 운영수지를 생각

해서 못 내는 책들이 많거든요. 개인도 좋고, 출판문화에 관심이 많은 업체도 좋으니 지원을 해주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성균관대학교출판부는 젊음

과 희망의 공간이면서 지성의 메카가 되는 대학 공간에서 맘껏 양서를 발굴해 낸다는 점에서 대학출판부의 미래를 개척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

역시 출판문화에 새로운 지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홈페이지

